

# ‘문학의 해’와 문학전문지

정진규

시인·《현대시학》주관

올해 1996년을 ‘문학의 해’로 지정하고 그 조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일종의 관제적 문학운동을 그간 눈여겨 보아왔다. 이런 성격의 사업들이 문학 그 자체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번번이 겪어왔기에 역시 회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딱이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어 얼마간 다행스러웠다.

문학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작업에 들어갔다든가 하는 소식은 꽤 괜찮은 것이었으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제작한 것을 발표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나중이야 알고 좀 씩씩하기는 했지만 우리 현대시를 집대성한 CD롬 제작에 간접적으로나마 관계하고 있음도 의미있어 보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쏟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외면되고 있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운동들이 우리 문학의 중심 마당인 문학 전문지들과는 전혀 직접적인 제휴를 하지 않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지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1996년 하반기로 깊게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문학지에서도 ‘문학의 해’를 위한 기획 기사나 논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기사 정도가 아니라 ‘문학의 해’라는 집중적인 설정을 했다면 이를 계기로 우리 문학을 위한 전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제기과 분석을 문학지에 반영시켰어야 옳다. 한두 차례의 세미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주마간산격의 장외 행사로 끝난 느낌이 없지 않다.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 주듯이 이번의 설정이 대중적 수용과 이해를 위한 다리놓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문학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대중 장르의 그것들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 아닌가. 그 즐거움은 대중 장르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또다른 이해와 감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한 논의나 분석은 물론 문학 자체의 성숙을 위한 기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음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소중한 예산들이 아마도 1회적인 행사들을 위해서 거의 낭비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문학전문지들이 자생능력을 잃고 경영에 허덕이고 있음을 모르지 않지 않는가. 문예진흥원의 지원이 중단된 뒤에 더욱 그렇게 되었고, 그 악순환으로 문학전문지답지 않은 문학전문지들이 물을 흐리고 있음 또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경제적 자생능력이 없으면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는 무책임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비문화적 사고가 지금 우리 문학을 얼마나 상치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았어야 할 일이다. ‘문학의 해’라고 내어 걸었으면 말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학전문지는 문학활동의 기본 매체이며 그 자체가 아닌가.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라고 했으니 하다 못해 문학전문지 구입운동같은 것이라도 벌였어야 했다.

어쨌건 본말이 전도된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문학이 1회적인 이런 운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본질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위되었어야 한다. ❖

알림

본지 8월5일자 쉽니다

《출판저널》은 여름철 정례휴가에 따라 8월5일자는 쉬고, 8월20일자로 제197호를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초대 2 《한국의 도시》 펴낸 박병주 교수

3 《두만강》 펴낸 김산호 화백

특집/정보사회, 4 불항에도 효자노릇 톡톡히 한 실용서들  
실용서 시대

6 현장감각 뛰어난 베스트 실용서 저자들

8 눈길 끄는 독특한 주제의 실용서

책갈피 산책 9 유홍준의 《정직한 관객》(다시 현실 전통의...)를 읽고 - 백정숙

출판 화제 10 몰락한 추리소설 권토중래 이룰까  
침체 속에 선보인 올 여름 추리소설

여름 에세이 12 가장 자유로운 깨달음의 시 - 고희렬

자연의 치유력을 얻기 위하여 - 정효구

14 여행길 책 한권의 상징 - 강학순

시집 서평 15 상반기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읽고 - 강상희

세미나 16 “경쟁력 강화 위한 출판 진흥책 필요”

출판, 제17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개최

출판계 소식 17 ‘간행물윤리위’ 청소년권장도서 선정·외

책 읽는 사람 18 뉴욕의 한적한 모퉁이에서 펴든 책 - 정진국  
② 여인과 책, 뉴욕

서평 20 한형조 《주회에서 정약용으로》 - 황의동

황태연 《지배와 이성》 - 박효중

21 이정진 《녹색정책》 - 이상돈

22 구도원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 - 이윤재

송성수 편역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 오동훈

23 스투어트 《자연의 수학적 본성》 - 김인수

전시회 화보 24 새로운 ‘책격’의 탄생

미리 보는 정병규 출판디자인 전시회

21세기 출판주역 26 ‘새물결’출판사 조형준 기획실장

정보라이트 27 우리책 수출하기 ② - 조승훈

이 책 그 사람 28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다》 펴낸 이원출씨

《한국불교미술사》 펴낸 김영주씨

29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펴낸 한비아씨

《메밀꽃이 피면 사랑도 깊어간다》 펴낸 이상권씨

새책 흐름 30 개성과 품격 지닌 우학소설·외 / 문학·실용

32 서점가에도 UFO 신드롬·외 / 과학·컴퓨터

34 새책 속으로

38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

표지 사진 / 강운구(정병규 북디자인 《부초》, 관련기사 24면)